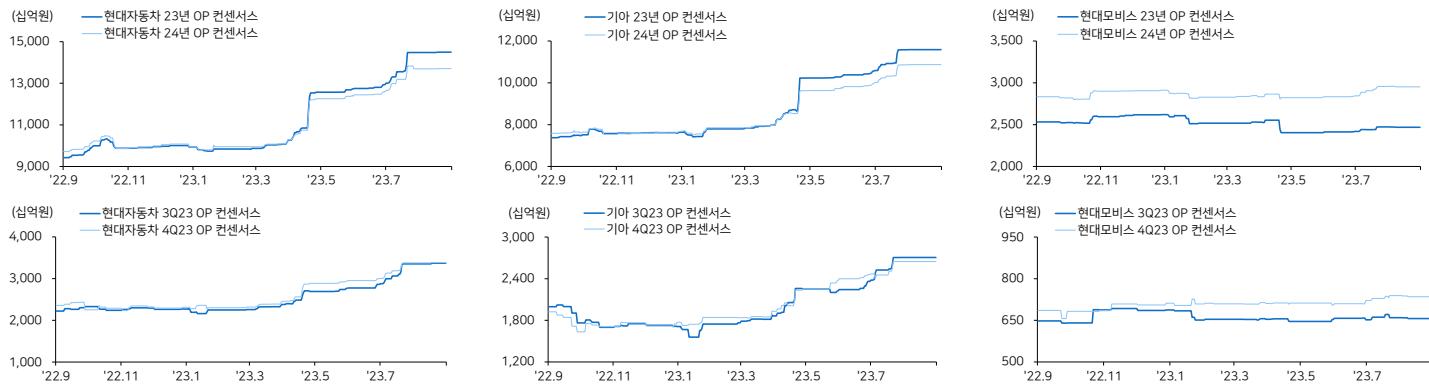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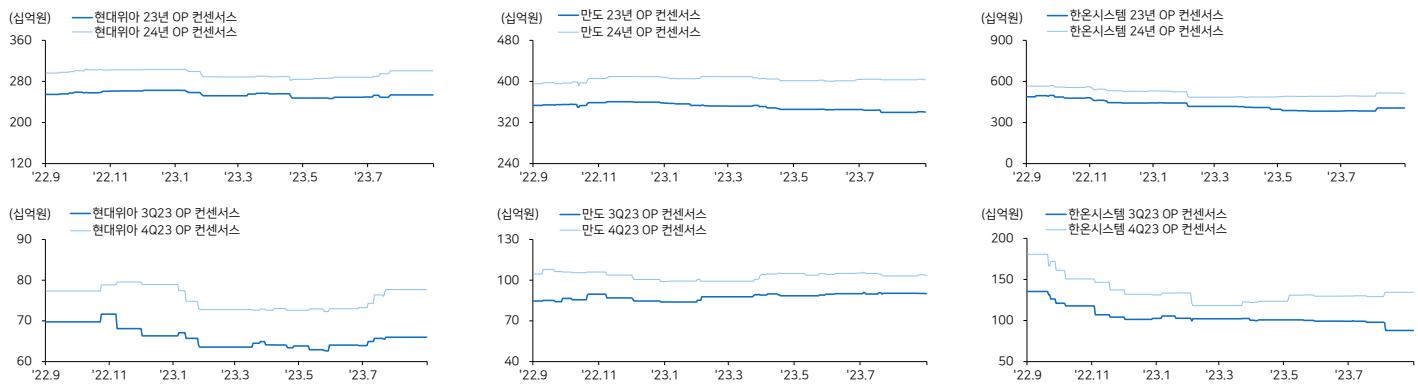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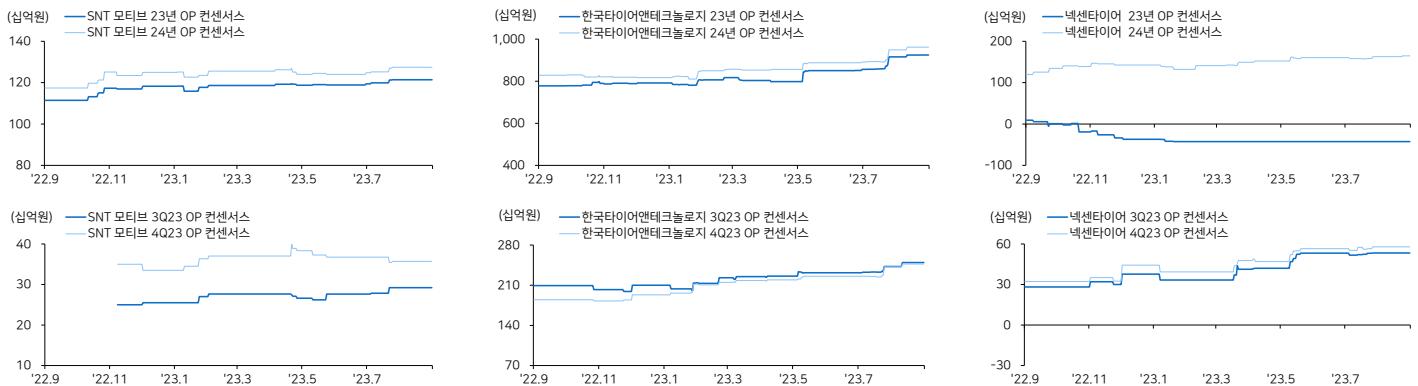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Shanghai plant sees milestone of 2 millionth car roll off line (CnEVPost)

Tesla의 중국 공장이 가동 4년여 만에 차량 생산 200만대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 2019년 1월 가동에 들어간 공장은 지난해 8월 100만대째 차량을 생산했으며 100만대에서 200만대까지는 13개월가량이 걸린 것으로 나타남

<https://han.gl/bbFraH>

전기차 제조사 폴스타가 자체 스마트폰 출시한다고? (디지털투데이)

폴스타 CEO는 올해 말 중국 시장에 폴스타와 동시에 폴스타 브랜드 이름을 딴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 밝힘. 폴스타의 스마트폰은 중국 제조사 메이주시의 지원을 받을 예정. 업계는 자동차와 휴대폰의 원활한 전환을 가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

<https://han.gl/FKdKyB>

현대차, 레벨4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 클러닝' 기술 개발 (전자신문)

현대차그룹은 독일 IAA 모빌리티를 보호하는 커버 글리스의 하천과 소형 와이퍼를 결합해 외부 오염을 제거하는 '로터레이터캡(Rotator-Cam)'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힘. 현대차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레벨4 자율주행 모빌리티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

<https://han.gl/zgyikA>

현대차, 유럽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치열할 듯 (글로벌이코노미)

중국 전기자동차가 독일 IAA 모빌리티 2023을 계기로 유럽 시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현대차와 토요타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더해져 현지 시장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

<https://han.gl/FFTMF>

Tesla Won't Invest in Building a Factory in Indonesia Anytime Soon (Tesmanian)

인도네시아 정관은 Tesla가 자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지난달 Musk와 회담에서 불안정한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해외 제조 현장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https://han.gl/gLudgFjF>

Volkswagen CEO does not see Chinese EV makers as a threat as prices double overseas (Electrek)

VW CEO는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에서 결집하는 중국 EV 브랜드에 대해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밝언함. 노하우와 품질 측면에서 여전히 우위의 지위, 유럽의 요구 사항에 맞게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 비용 등을 이유로 제시

<https://han.gl/YAwzil>

Tesla suppliers say carmaker expects 2026 or 2027 Mexico production start (Reuters)

멕시코 일간지 Reforma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Tesla는 멕시코에 계획된 신규 공장 건설을 2026년 또는 2027년으로, 예상보다 늦은 시점에 시작될 예정임. 앞서 여러 매체는 2025년 Tesla의 멕시코 생산을 보도한 바 있음

<https://han.gl/GePUt>

"물류 전용 PBV 개발"…기아,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맞손 (서울경제)

기아는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 전용 PBV를 개발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함. 협약에 따라 양사는 물류에 최적화된 PBV 개발과 전동화 신기술 실증 및 친환경 물류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할 계획

<https://han.gl/HstLODA>